광주FC 선두 유지 중원 장악에 달렸다

10일 오후 8시 부천FC와 23라운드 원정 대결
2위 부산과 승점 7점차…승점 50점 돌파 목표
여름·여봉훈·하칭요 등 교체선수 집중력 관건

2019시즌 K리그2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광주FC다.

개막 19경기 무패행진을 벌이며 K리그2 선두로 치고 올라섰다.

20라운드에서 안양에 1-7 대패를 당하며 무패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는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광주는 21라운드 수원전 2-0 승리, 22라운드 전남전 1-1 무승부로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섰다.

8일 현재 승점 49점으로 여전히 K리그2 선두를 달리는 광주지만 2위 부산 아이파크(42점)와 승점 7점 차에 불과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아직 14경기가 남아있고, 부산이 다득점에서도 10골 차로 앞서 있기 때문이다. '다이렉트 승격'을 향한 단독 선두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승점을 벌어둬야 한다.

10일 오후 8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1995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23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 광주의 목표는 승점 50점 돌파다.

K리그2 통산 23라운드에서 승점 50점을 넘은 팀은 대전 시티즌(2014년)과 경남FC(2017년)로 두 팀 모두 조기 우승을 확정, 1부리그 승격에 골인했다.

광주는 부천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역대 전적에서 8승 4무 3패로 앞서있으며 올 시즌에는 2연승에 5득점 1실점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원정 1-0 승리를 안긴 여름과 6월 16일 홈 경기에서 2골을 넣은 펠리페가 부천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 기대가 크다.

부천은 최근 2경기 동안 막판 뒷심 부족과 공격력 부재로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경기로 인한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천전에 임해야 한다.

박진섭 감독은 무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훈련시간을 오후 3시에서 4시로 늦췄고 휴식과 함께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등 집중력을 높여 부천전을 준비하고 있다.

승리의 열쇠는 성공적인 중원의 변화다.

광주는 이전 경기와는 다른 라인업으로 부천전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수는 경고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임민혁은 전남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대체 자원으로 나설 부주장 여름과 여봉훈, 신입 용병 하칭요가 이들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는지가 승점 50점 선점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여름

광주체고 안세영 8강 진출
2019인도하이데라바드오픈

광주체고 안세영(2년)이 8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G.M.C. 발라요기 사타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인도하이데라바드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100) 8강에 진출했다.

안세영은 이날 열린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인디아의 아카라시 카시얍을 2-0(21-18 21-13)으로 꺾었다.

세계랭킹 32위인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 2번 시드를 받아 출전, 전날 열린 32강전에서 태국의 눈타칸을 2-0(21-11 21-11)로 꺾고 16강에 올랐었다.

여자단식에 함께 출전한 심유진(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은 16강전에서 이 대회 6번 시드를 받은 대만의 파이유포에 1-2(12-21 21-7 15-21)로 패했다.

장은서(인천대 1년)와 호흡을 맞춘 화순군청 정나은(19)은 여자복식 16강에서 인도네시아 시티 파디아 라마드한티-수지아르토조를 2-1(21-15 19-21 21-16)로 꺾고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이 대회 여자단식에서 김가은이 금메달, 심유진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

벤투호 월드컵 2차예선 준비
26일 명단 발표…내달 평가전

6월 평가전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준비에 들어갔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9월 시작되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소집 명단을 26일 발표한다.

대표팀은 9월 2일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달 5일 예정된 평가전은 원정으로 치를 전망이다.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가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1차전을 닷새 앞두고 치를 평가전 상대로 현지 적응이 가능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직항이 있는 도시의 국가를 찾고 있다"면서 "중동권 팀들을 9월 5일 평가전 상대로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10월 15일 평양 원정은 오후 5시 30분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동 경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팀은 2017년 4월 북한 평양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했던 여자대표팀처럼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육로를 이용하거나 직항 항공편으로 방북할 수도 있다.

대표팀 관계자는 "우리 선수들이 최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동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방북하려면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의 방북 일정 및 방법과 관련해 조만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11월 평가전 장소와 상대 팀도 고민거리다.

대표팀은 11월 14일 레바논과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 원정 경기가 잡혀 있다.

/연합뉴스

PGA투어 노던 트러스트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대회장인 미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타이거 우즈가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즈 허리 통증…프로암 9개 홀에서만 풀 스윙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를 앞두고 허리 통증 때문에 프로암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AP통신은 8일 "우즈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프로암 후반 9개 홀에서는 풀스윙을 하지 못했다"며 "대회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총상금 925만달러)에 출전한다.

대회 개막 하루 전에 프로암에 나선 우즈는 기자들과 만나 "약간 결리는 느낌이 있어서 스윙을 조심스럽게 했다"며 "1년 내내 하는 얘기지만 허리 상태가 계속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날은 좀 더 심하고, 또 다른 날은 괜찮다"며 "오늘은 좀 안 좋았는데 내일은 다시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사이에 네 차례 수술대에 오른 그는 "4월 마스터스에서 우승할 때도 대회를 앞두고 9개 홀에서 칩샷과 퍼트만 연습했다"며 "작년에 대회 출전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대회 출전을 많이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18개 대회에 출전한 우즈는 이번 대회가 2018-2019시즌 11번째 대회다. 나이와 몸 상태 등을 고려해 대회 출전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다.

/연합뉴스

광주FC 이한도 K리그2 22R 베스트11

광주FC 중앙수비수 이한도가 하나원큐 K리그2 22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이한도는 지난 3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추가시간이던 47분,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한도는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된 공을 상대 골키퍼 박준혁이 쳐낸 혼전 상황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전남의 골문을 갈랐다. 자신의 시즌 1호 득점이다. 광주는 이날 전남과 1-1로 비겼다.

22라운드 베스트11에는 키쭈(대전) 정재희(전남) 노보트니(부산·이상 FW), 안토니오(대전) 알렉스(안양) 백성동(수원FC) 두아르테(서울E·이상 MF), 수신야르(부산) 이한도, 이지솔(대전·이상 DF), 김영광(서울E·GK)이 선정됐다. MVP의 영예는 안토니오가 안았다. 안토니오는 안산과의 2-0 승리 경기에서 선제골 도움, 추가골을 터트리며 대전의 2골에 모두 관여했다. 대전은 이날 승리로 7연패에서 탈출했다. 베스트팀은 서울이랜드, 베스트매치는 서울이랜드와 부천 경기가 선정됐다.

/최진화 기자

광주체육중 김가현(왼쪽)이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19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1㎏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

광주체육중 김가현 세계유소년태권도 은메달

결승서 이란에 패
한국 첫날 은2·동1

광주체육중 김가현(2년)이 2019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가현은 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시작된 대회 여자 51㎏급에 출전, 2위를 차지했다.

김가현은 16강에서 터키 이기탈프에 22-11로 승리한 뒤 8강에서 카자흐스탄 가립라시도바에 31-10 PTG(2라운드 종료 후 점수차 20점 이상)승리를 거뒀다. 준결승에서 안도라의 알베로라를 상대로는 3라운드까지 18-18로 무승부를 이루다 4라운드 시작 50초 만에 골든포인트 2점을 획득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승에서 이란의 장신 선수 모비나 네맛자데흐에 4-24로 3라운드 PTG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이날 김가현의 은메달을 포함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여자 29㎏급에서는 신수인(현흥초)이 은메달을, 남자 65㎏급은 김찬영(중화중)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수인은 모로코, 몽골리아, 영국 선수들을 차례로 꺾고 4강에 진출, 미국 애슐리최를 13-5로 이겨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승에서 태국 타라트고엔에 13-29로 져 금메달을 놓쳤다.

김찬영은 4강에서 러시아의 자고룰코에 15-30으로 졌다.

만 12~14세 태권도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고 우정도 쌓는 이 대회에는 64개국에서 54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최진화 기자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져야죠"

손흥민, 2019-2020시즌 개막 출사표

"빨리 경기에 나서고 싶습니다. 여름휴가 때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토트넘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치른 총 58경기 가운데 51경기에 출전해 20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프리미어리그 4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리그컵 준결승 진출 등에 힘을 보탰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손흥민 역시 구단의 기대에 자신감으로 화답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토트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보다 다 나아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즌은 나를 비롯한 모든 선수가 정말로 대단했다.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순간이었다"라며 "매 순간을 즐겼다. 많은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고, 기복도 있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여러 차례 팀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필요한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웠다. 사실 내가 없어도 동료들이 잘해줬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지난 시즌 37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아 1-2라운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그래서 손흥민은 새 시즌 개막이 더욱 기다려진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